

비대위 구성해 전대... '신발끈' 묶는 與 당권주자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에 따라 사령탑 공백을 맞은 국민의힘은 관리형(실무형) 비대위 전환 후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 시선은 한 전 위원의 당권 도전 여부에 쏠리고 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할 상황은 아니다"며 "(전당대회를 준비할) 실무형 비대위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면 서도 "빨리 조속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추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당내 일각에서는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20대 총선 패배 20일 만에 정진석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원장을 맡고 8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 임기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29일까지다. 국민의힘은 내달 10일까지는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방침이다.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김도읍·김상훈·박찬대 의원 등이 언급된다. 3선에서는 이양수·추경호·송연석·이철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반면 인요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 등이 알아야 한다는

"전대 개최시기는 특정 안 됐지만 조속히 개최" 한동훈 前위원장 당권도전 여부에 초미의 관심 나경원·안철수·권영세·권성동 등 하마평 무성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총회에서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합당을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실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관리형 비대위 전환 후 조기 전당대회가 확정된 건 아님을 시사했다. 그는 "낙선자들 의견을 듣자는 말도 (총회에서) 있었다. 내일 상임고문단 자체 모임이 있다. 핵심 당직자들이 참석해 그분들 얘기부터 들어볼 것"이라며 "낙선자 오찬은 금요일(19일)에 추진하려는데 마음 정리가 안 된 의원들도 있을 것 같아

(낙선자) 규모를 파악하고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 의견대로 당 운영이 이뤄질 경우 한 전 위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 전 위원장은 사퇴 당시 정계 은퇴는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 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상민 의원은 "한 위원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시샘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다"면서도 "선거에 책임 있는 분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 영입 인사인 김경을 전 비대위원도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0에 수렴한다고 본다. 맺고 끊는 건 확실한 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새 지도부는 '수도권 당 대표-영남권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당권 주자로는 나경원 당선인과 안철수·권영세·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 중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를 시도했던 나 당선인-안 의원이 특히 쇠신형 당대표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서울 동작을(나경원)·경기 분당갑(안철수)이 지역구다. 당내 상당수 인사들은 "수도권 민심을 확인했으니 또 영남 당대표는 안 된다"고 주장 중이다. 오주환 기자jhoh@skyedaily.com

조국 교섭단체 추진... 친명계 시선은 복잡

이재명 대권 경쟁자로 부상 입지 올라가자 견제 움직임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획득해 원내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공동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추진에 착수했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내부 경쟁자인 조국 대표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시선이 복잡한 가운데 본격적인 범야권 과열음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16일 조국혁신당은 단독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노력하고 방식 등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내달 30일까지 교섭단체 구성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를 위해선 8석이 더 필요하다. 22대 국회 군소정당으로는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 △새로운미래(1석) 등 6석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을 더하면 모두 8명이 된다.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여의치 않을 시



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주도로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민주당 친명계에 선 사실상 친문계인 조 대표 입지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촉구 등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태도를 견지 중이다. 친문·친명계의 약연은 유명하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이 처음 제기된 곳도 친문계다. 20대 대선에선 친문계 일부 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오주환 기자jhoh@skyedaily.com

만평 화필살인(畫筆殺人)



방한 유엔 미대사 "대북제재 패널 종료는 북핵·미사일 고도화 기회"

정부는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 대사가 방한해 15일 외교·국방부 장관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유엔 미대사의 방한은 2016년 10월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종료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공백을 메울 대안책을 논의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조 장관과의 접견에서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무산에 대해

외교·국방부 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실망감을 표명했다. 신 장관과의 접견에서는 북한 핵 및 탄도 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임을 지적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꼬집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

다며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엔 안보리 내 한·미 및 한·미·일 간 협력과 6월 의장국 수임 관련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활동하면서 '글로벌 중추국'의 역할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엔 안보리를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3국 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역 휴전 촉구 결의의 성공적 채택을 견인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올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

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가자지역 상황과 우크라이나전쟁, 아이티, 미얀마 등 글로벌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도 교환했다.

곽수연 기자sykwak@skyedaily.com

근로복지공단

보상, 요양, 재활까지! 일하는 사람 모두!

산재보상 올라잇!



신속! 공정!

01

산재보상

- 출퇴근재해보상
- 업무상질병보상
- 보험급여지급

빠른 쾌유를 돕는!

02

요양서비스

- 요양지원(치료)
- 재요양·추가상병
- 공단병원 운영

안정적인 일터복귀!

03

재활서비스

- 의료재활
- 심리재활
- 직업재활